

지식 수용의 차원에서 본 『황성신문』 『일본유신30년사』 역술(譯述) 과정과 그 의미

- ‘학술사상사’와 ‘교육적’ 측면의 지식 수용을 중심으로 -

허재영*

|| 차례 ||

- I. 서론
- II. 『일본유신삼십년사』의 저술 및 역술 과정
- III. 지식 수용 양상에서 본 『일본유신삼십년사』의 학술사상과 교육
- IV.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1898년 일본 박문관에서 발행한 『메이지 30년사(明治三十年史)』가 중국어 판 『일본유신삼십년사(日本維新三十年史)』로 번역된 뒤, 우리나라의 『황성신문』에 역술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을 고찰하고, ‘학술사상사’와 ‘교육사’를 중심으로 이 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피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 글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황성신문』 1906년 4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 역등된 『일본유신삼십년사』는 1902년 상해 광지서국에서 중국어로 역술한 『일본유신삼십년사』를 국한문으로 역술한 자료이다. 중국어 역술본은 1898년 일본 박문관의 잡지 『태양』 제4권 제9호의 『전도 30년사』에 수록된 『메이지 30년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역술자는 재일본 중국인 유학생 출신의 루오샤오가오(羅孝高)였다.

둘째, 『황성신문』에서 이 책을 역술한 까닭은 ‘역사의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역사학의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부교수.

이해득실 차원에서 ‘강구’, ‘모범’해야 할 자료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셋째, 이 역술본은 개항 이후 일본 관련 지식을 단편적으로 소개하거나, 아예 일본어로 된 자료를 직수입하는 상황에서 국문 보급의 필요성에 부합하여 역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록 전편을 역술 등재하지는 못했지만 8개월이라는 비교적 오랜 기간 연재된 만큼, 역술본에 소개된 일본 관련 지식의 양적인 면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이 역술본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자료에 나타난 학술사상사와 교육사 관련 지식은 메이지 이후의 일본주의, 국가사상, 국민사상 등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특히 메이지 유신의 국가주의 사상과 교육은 국권 침탈기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국의 국가사상, 국성론(國性論) 또는 국민사상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이 시기 일본의 사상과 교육은 그 자체로서 모범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면서도 저항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는 이중성을 갖고 있었다. 일본의 근대화를 긍정하고 선망하면서 모범해야 한다는 논리와 국권 침탈에 대한 저항의 논리가 혼재 되는 상황에서 메이지 유신 담론과 국가 이데올로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 논리가 산출되는 데에는 시대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주제어 : 일본유신삼십년사, 황성신문, 역술, 사상사, 교육사, 국가주의

I. 서론

이 글은 1898년 일본 박문관에서 발행한 『메이지 30년사(明治三十年史)』가 중국어판 『일본유신삼십년사(日本維新三十年史)』로 번역된 뒤, 우리나라의 『황성신문』에 역술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을 고찰하고, ‘학술사상사’와 ‘교육사’를 중심으로 이 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피는 데 목표를 둔다. 이 책은 1898년 일본 도쿄[東京] 박문관(博文館)에서 메이지 유신 30년을 기념하여 일본인 학자 12명이 집필한 일본의 시사평론서이자 근대 역사서이다. 특히 학술사상과 교육 발달은 지식 형성의

근본이 된다는 점에서, 이 책에 서술된 일본 근대의 학술사상사 및 교육 분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책은 1902년(광서 28년) 중국 상해의 광지서국(廣智書局)에서 루오샤오가오(羅孝高)가 중국어로 역술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황성신문』에 ‘잡보(雜報)’에서 1906년 4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역등(譯騰)하였다. 『황성신문』 역등본은 제12편으로 구성된 『일본유신삼십년사』 가운데 제1편 ‘학술사상사(學術思想史)’, 제2편 ‘정치사(政治史)’, 제3편 ‘군정사(軍政史)’, 제4편 ‘외교사(外交史)’, 제5편 ‘재정사(財政史)’, 제6편 ‘사법사(司法史)’, 제7편 ‘종교사(宗教史)’, 제8편 ‘교육사(教育史)’이며, 제9편 ‘문학사(文學史)’, 제10편 ‘교통사(交通史)’, 제11편 ‘산업사(產業史)’, 제12편 ‘풍속사(風俗史)’는 역등하지 않았다.

이 역등본은 개항 이후 1910년대까지 일본의 역사를 가장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개한 자료로 평가되며, 그 가운데 제1편 ‘학술사상사’와 제8편 ‘교육사’는 당시 일본의 사상과 교육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일 뿐 아니라, 이 시기 우리나라의 국가주의 사상이나 문명 진화론을 중심으로 한 교육 사조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황성신문』 역술본에 대한 선행 연구는 김효전(2000), 이예안(2014)이 있는데, 전자는 이 역술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니며, 역술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예안(2014)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르면 『일본유신삼십년사』(1902, 廣智書局)는 일본 잡지 『태양(太陽)』(博文館, 1898)에서 도쿄 천도 30주년을 기념하여 발행한 특별 증간호 『천도 30년(奠都三十年)』에 수록된 ‘페이지 30년사’를 저본으로 한 것이며, 『황성신문』 역술본은 중국어 역술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예안(2014)에서 지적했듯이, 『황성신문』 역술본은 일본 근대의 ‘황국사관, 일본주의, 진보주의’를 소개함으로써 국가 정치의 정통성이나 근본적인 정치 개혁보다는 ‘충군

애국, ‘국민사상’의 ‘폐쇄회로’에 맴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근대 한국의 사상사나 교육사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이 역술본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개항 이후 사상 및 교육 차원에서 일본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던 대한제국의 교육사 연구에서는 이 시기 일본의 교육의 현실과 교육사와 관련된 지식 수용 상황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보다 앞선 시기의 일본에 대한 각종 자료에 비해 이 책은 학술사상과 교육 진보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개했기 때문이다. 또한 『황성신문』에서 8개월이라는 비교적 오랜 기간 이 책을 역등한 것은, 그만큼 일본의 유신 사상이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었으며, 우리의 학술사상과 교육 문제에도 큰 교훈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책은 다른 신문이나 학회보에는 등장하지 않으며, 국문판 단행본으로 출간된 적도 없다. 특히 근대 계몽기 한국 사회에서 일본 근대화를 모범하여 유신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등장했음에도, 『황성신문』 역술본 이외의 국문 자료가 없다는 사실은 이 시기 외국 서적의 직수입 현상이나 일본 국가주의의 불완전한 수용 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II. 『일본유신삼십년사』 저술 및 역술 과정

1. 『메이지 30년사』 저술 및 중국어 역술

이예안(2014)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본유신삼십년사』는 『전도 30년』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메이지 30년사’를 저본으로 한 것이다. 『전도 30년: 메이지 30년사(寬都三十年: 明治三十年史)』는 1898년 일본 박물관(博文館)에서 발행한 잡지 『태양(太陽)』 제4권 제9호로 발행되었으며, 편자는 기시카미 미사오(岸上操), 발행인은 오오하시 신타로(大橋新太郎)였다.¹⁾

전도(奠都)는 도쿠가와(德川)의 에도 막부가 끝나고 메이지 원년 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책을 발행한 이유는 이른바 메이지 유신 이후 30년간의 군국주의 성장 과정을 기념하고, 일본의 국세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 책은 ‘사진동판’(36장), ‘서언(緒言)’, ‘전도의 유래’, ‘전도 30년 축하회’, ‘축하회의 경황(景況)’, ‘전도사총(奠都詞叢)’, ‘전도휘문(奠都彙聞)’, ‘전도담총(奠都談叢)’ 등의 총론과 12편으로 구성된 ‘메이지 30년사’로 이루어져 있다.

『메이지 30년사: 전도30년(明治三十年史: 奠都三十年)』(1898, 博文館)는 다카야마 초규(高山樗牛, 1871~1902)를 편자로 하였으나 책명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태양』 제4권 제9호를 다시 발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카야마 초규는 『태양』 편집자로 제1편 총론을 집필한 다카야마 린지로(高山林次郎)의 필명이다. 이 시기 일본과 중국의 고전에 조예가 깊고, 구미 사상을 폭넓게 공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일본주의’를 제창하여 호응을 얻었던 인물이다. 제2편 ‘정치’는 도리야베 데쓰타로(鳥谷部鐵太郎), 제3편 ‘군사’는 오쿠무라 신타로(奥村信太郎), 제4편 ‘외교’는 마쓰이 고키치(松井廣吉), 제5편 ‘재정’은 모리 이치페이(森一兵), 제6편 ‘사법’은 미야카와 다이주(宮川大壽), 제7편 ‘종교’는 아네사키 마사하루(姉崎正治), 제8편 ‘교육’은 하세카와 세이야(長谷川誠也), 제9편 ‘문학’은 야나이 로쿠타로(柳井録太郎), 제10편 ‘교통’은 쓰보야 겐시로(坪谷善四郎), 제11편 ‘산업’은 아이시마 니키치(藍鳥仁吉), 제12편 ‘사회’는 기시가미 마사오(岸上操)가 집필하였다.

중국어 역술본은 1902년 상해 광지서국(廣智書局) 편역부(編譯部)에서 역술하였는데, 책명을 ‘일본유신 30년사’로 바꾸었으며, 자오비젠(趙必

1) 『전도30년』(1898, 博文館)에 대해서는 이예안(2014)에서도 간략히 설명한 바 있다. 이 책은 구글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http://kindai.ndl.go.jp/info:ndljp/pid/899965>)

振)²⁾의 ‘서문(序文)’과 편역부의 ‘예언(例言)’을 수록하였다. 서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日本維新三十年史序

(前略) 故今日之談新史學者 輒爲吾中國無史 非無史也. 不過二十四姓之家譜年表耳. (中略) 其時則有田口久松, 福田久松, 物集高見 等 始有日本開化小史, 日本文明畧史, 日本文明史畧 等著錄. 大抵注意於社會進化之故. 而不爲一朝一代之書記奴隸者. 既而風潮日激. 競爭日烈. 有所謂西洋主義, 歐化主義, 英吉利派之功利主義, 法蘭西派之自由主義, 德意志派之國家主義, 實利主義, 平民主義, 國民主義, 保護主義, 進步主義, 模倣外物主義, 崇拜外人主義, 國粹保存主義 等 [以上所述 僅舉其目 如歐化主義 卽 西洋主義 而三派主義 又皆隸於西洋主義者 茲僅述其大致 故括言之] 互相衝突舉國淆. 然而 社會內部之情形 亦因之而大變. 而學術上, 政治上, 軍政上, 外交上, 財政上, 司法上, 宗教上, 教育上, 文學上, 交通上, 產業上, 風俗上 一切關於社會者. 莫不受其影響. 而進步 而改良 而摧鋤震蕩 而廓清其舊來之習. 慣以與萬民更始焉. 卽史界之鉅子 於是亦隨其風潮而改革. 一洗其舊日君史之陋習. 而紀有關於社會之大者. 是爲東亞民史之權輿. 近者日本人有編輯日本維新三十年史 搜輯頗富 纂述尤精順德 **羅君孝高譯而述之**. 文詞斐然 精理鬯達 爲近來譯述家之最善. 本其益我國民 良非淺鮮. 雖然進化之公理 靡有窮時. 今日之史 視昔日之神代史 君史. 固非可同年而語. 而回顧來紀. 後生可畏則此編者. 又不過爲民史之樞輪. 而進化愈速 則此編又爲芻狗矣. 安得譯才如君者. 遍譯後日進化之史. 以餉我國民 爲史界放一大異彩也. 壬寅五月 武陵 趙必振曰生父序.

2) 자오비젠(趙必振, Zhào Bizhèn 1872~1956): 중국 호남성(湖南省) 출신의 근대 계몽학자로, 무술변법 실패 이후 일본에 망명하였으며, 1900년 광서성학회 가입하여 『청의보』, 『신민총보』 등을 편집하였다. 1902년 『20세기 괴물 제국주의』, 『근세사회주의』 등을 번역 출판하였으며, 『일본유신강개사』, 『일본인권발달사』 등을 저작하였다.

이 서문에서는 전통적인 역사와 ‘신사(新史)’의 차이를 밝히면서, 당시 일본의 역사 서술이 ‘사회 진화’의 차원에서 다양한 서구 사상을 도입하여 ‘군사(君史, 군주의 역사)’에서 ‘민사(民史, 국민의 역사)’로 전환되고 사회 개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일본유신30년사』는 ‘풍부한 자료 수집’, ‘임금을 섬기고 효를 고양하며 덕을 높이도록’ 정밀하게 찬술되어 역사학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루오샤오가오(羅孝高, 1876~1949)가 번역했음을 밝혔다. 번역자인 루오샤오가오는 kang유웨이의 제자로 와세다 전문학교(早稻田專門學校)에 관비 유학생으로 경제특과(經濟特科)를 졸업했으며, 『청의보(淸議報)』, 『신민총보(新民叢報)』의 편집을 맡고, 『정당론(政黨論)』, 『이십년래의 경제상황(二十年來之經濟狀況)』 등의 서적을 역술하였다.

광저서국에서 『일본유신30년사』를 역술한 이유는 이 책의 ‘예언(例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예언’은 이 책의 ‘일러두기’에 해당하며, 모두 4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2) 日本維新三十年史之例言

- 一. 此書乃日本明治三十年. 日人舉行維新紀念大祝典[維新三十年 祝典]於東京. 時則有博文館者. 東京第一大書林也. 乃廣聘通人. 將三十年來國運之進步. 敘述成書. 頒諸國民. 以當慶祝號爲明治三十年史. 今特譯述. 改爲今名.
- 一. 近年我國譯行之日本史. 亦有數種. 然大率詳於政治而畧於其他. 蓋猶舊史之體裁也. 此書分爲十二編. 一曰學術思想史, 二曰政治史, 三曰軍政史, 四曰外交史, 五曰財政史, 六曰司法史, 七曰宗教史, 八曰教育史, 九曰文學史, 十曰交通史, 十一曰產業史, 十二曰風俗史. 蓋國勢民情 無一不具備焉. 兼有資治通鑑 文獻通考之長. 東史中佳本. 未有能及此者也. 學者苟能卒業焉. 則於日本現今之文明程度. 可以通

其體而達其用矣.

- 一. 前者黃公度京卿遵憲所著 日本國志. 其體例頗與此書相類. 然所紀者止於明治十四年. 日本近日進步之速. 一日千里. 故十年間變更之現象. 比諸前代百年千年. 尙或過之. 然則據黃書以求日本今日之國情. 無異據明史以語中國今日之時局也. 且甲國人言乙國之事. 必不能如乙國人自言之之詳且確也. 京卿雖學問博通擇言尤雅. 而於日本維新之眞精神. 尙多未見及. 故欲知日本之所以爲日本. 非讀此書不能.
- 一. 此書原本十二編. 由日本著名博士 學士 高山林次郎 君 姊崎正治 君等 十二人 分纂. 人顯(전)一門. 故其紀載之詳博. 議論之精新. 眞有山陰道上應接不暇之觀. 譯者爲羅君孝高. 自丁酉年卽東游留學 於東京專門學校. 深通東文. 且嫻(한)悉其政治學問風俗. 與尋常卒爾操觚(고)者有別. 讀者細甚. 自能辨之. 光緒 二十八年 三月 廣智書局 編譯部 謹識

‘에언’은 『일본유신30년사』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이 책이 ‘구사(舊史)’ 체제의 기존 일본사와 다른 점, 황준헌(黃遵憲)의 『일본국지(日本國志)』와의 비교, 집필자와 번역자에 대한 소개 등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일본 근대사 역술본과는 달리 구사(舊史)에 체제를 벗어나 쓰임이 넓고, 황준헌의 저술과는 달리 ‘일본이 일본 된 이유’를 이해하는 데 적합하며, 전문가로 이루어진 저술이며, 번역자의 역량이 뛰어남을 강조하고 있다.

2. 『황성신문』 역술본

『황성신문』 역술본은 이에안(2014)의 지적대로 중국서를 대상으로 역술한 것이다. 이에안(2014)에서는 일본서에 없는 ‘머리말’이 역술되었고, 제목이 일치하기 때문에 중국서를 역술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황성신문』의 역술본의 제목이 중국서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중국서에서는 제1편 ‘학술

사상사', 제2편 '정치사' 등과 같이 각 편마다 '사(史)'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황성신문』 역술본은 '제1회 학술편', '제2회 정치' 등과 같이 일본서의 제목에 가깝다. 그럼에도 번역 내용은 중국서를 직역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1회 학술편에 해당하는 세 판본을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3) 판본 비교

- ㄱ. 明治初年以來三十年間に於ける最近の歴史を述ぶるに先ちて、そが根底となれる國民思想の推移を尋ぬむに、そもそも維新の當時にありては、- 『寰都三十年史』第一編 總論。(『明治三十年史』同).
- ㄴ. 有學述而後有思想. 有思想而後有事業. 一人如是一國亦然 故國家之治積 實國民學術之反射. 而其思想之外表也. 日本三十年來銳意維新 著進步 文章制度爛然足觀. 然迹其致此之由. 自有一暗潮流左右於其間. 論世者苟深觀而有得焉 則以求其一切進步之原. 若網在綱矣. - 『日本維新三十年史』第一編 學術思想史.
- ㄷ. 學術이 有ᄃᆞᆫ 然後에 思想이 生ᄃᆞᆫ고 思想이 生ᄃᆞᆫ 然後에 事業을 成ᄃᆞᆫ 다키 一人만 如是 尙 아니라 一國도 亦然ᄃᆞᆫ니 故로 國家의 治積은 實로 國民 學術의 反射오, 學術 思想의 意表라. 日本이 三十年 以來로 維新에 銳意ᄃᆞᆫ야 着着히 進步ᄃᆞᆫ야 文章制度가 爛然足觀ᄃᆞᆫ시 其致此ᄃᆞᆫ 理由를 推究ᄃᆞᆫ면 一派暗潮가 其間에 左右ᄃᆞᆫ인 則 論世者ㅣ 진실로 深觀有得이면 一切 進步의 原因를 求ᄃᆞᆫ이 若網在綱이로다. - 『황성신문』 1906.4.30. '日本維新三十年史' 第一回 學術編 第一章

(3ㄱ)은 일본어판 『메이지삼십년사』의 총론이며, (3ㄴ)은 중국어판 제1편 학술사상사이다. (3ㄷ)은 『황성신문』 역술본으로 '학술편'이라는 용어 사용이나 내용면에서 중국어판을 역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어판에서는 총론부터 '국민사상의 추이'를 강조한 데 비해 중국어판과 『황성신문』 역술본은 '역사', '학술사상'의 차원에서 일본 유신의 역사를 고

찰함을 강조한 점이다. 이는 중국의 역술자나 한국의 역술자가 모두 ‘역사적 교훈’을 얻는 차원에서 일본 유신사를 번역하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국문 역술 의도는 『황성신문』의 ‘역사의독(歷史宜讀)’에서 잘 드러난다.

(4) 歷史宜讀

古今 天下에 人이 有하면 社會가 有하고 社會가 有하면 國이 有하고, 國이 有하면 歷史가 有하야 社會 人類와 文野와 國家 政治의 得失이 瞭如指掌이라. 是以로 列邦 博學士들이 歷史學을 專攻者 | 多하야 自己의 學術에 만 精益求精 홀 뿐 아니라 自國 文野得失의 大影響 大補益을 從此可見하느니 然則 歷史學이 世道 公益의 果何如哉오. 今此 日本 維新 三十年史는 明治 以後에 諸般 貫跡이니 我國 現時代에 不得不 講究 模範이기로 全豹를 譯述 如左하와 僉君子의게 供覽하오니 愛讀하심을 務望함.

(4)에 따르면 역술본은 역사학이 사회와 국가, 문명과 야만, 정치의 득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일본유신30년사’가 우리나라의 현 시대에 부득불 강구해야 할 모범이 되기 때문에 전표(全豹)를 역술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역술은 1906년 4월 30일 제1편 학술사상사로부터, 1906년 12월 31일 제8편 교육사까지만 연재되었는데, 남은 부분에 대한 역술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특히 제8편 교육사의 경우 중국어판에 들어 있는 제13장 ‘최근의 교육계(最近之教育界)’, 제14장 ‘교육학풍의 변천(教育學風之變遷)’에 대한 역술도 게재된 바 없는데, 이처럼 역술을 완결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역술자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도 찾기 어려운 데³⁾, 역술이 완결되지 못한 이유가 개인적인 것인지 아니면 신문사 사정으

3) 이 시기 교과서나 학회보의 역술 자료들은 번역 대상 자료와 역술자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본유신30년사’도 역술자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역술 작업을 수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추정하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다만 『황성신문』과 깊은 관련을 맺으면서도 중국어에 능통하고 역사에 조예가 깊었던 인

로 인한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Ⅲ. 지식 수용 양상에서 본

『일본유신30년사』의 학술사상과 교육

1. 일본 관련 지식 수용 양상

『황성신문』 역술본이 일본 서적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국어 역술본을 대상으로 한 데는 역술자가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시기의 지식 유통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개항 이후 조선의 근대 지식 유통은 중국 상해의 서적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한성순보』나 『한성주보』는 중국 상해의 선교사들이 발행했던 『상해신보』, 『자립호보』, 『중외신보』 등을 기사원(記事源)으로 활용했고, 근대식 학제가 도입된 직후 학부에서 편찬한 24종의 교과서에서도 『공법회통』, 『태서신사남요』, 『서례수지』 등은 상해 광학회의 서적을 학부에서 한문으로 편역한 것이다.⁴⁾

흥미로운 것은 188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 조선 지식인들의 일본에 대한 태도이다. 이 시기 일본은 서구의 학문과 사상을 수용하여 근대화를 이룬 국가로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학문과 사상을 수용하는 데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성순보』, 『한성주보』 등의 근대 신문이 등장하면서도, 일본 관련 지식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시된 것처럼 보인다. 1881년 조사시찰단에 의해 일본의 정치, 교육

물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석농 유근(石濃 柳瑾), 위암 장지연(韋菴 張志淵) 등과 같은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

4) 학부 편찬 교과서와 상해 광학회 서목에 대해서는 허재영(2015)을 참고할 수 있다.

제도 등이 전반적으로 소개되기도 했지만 그 영향이 크지 않았고, 『한성순보』 1883년 12월 9일자 ‘일본사략(日本史略)’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기도 했지만, 그 또한 일본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제일 유학생에게도 나타나는데 1896년 대조선재일유학생친목회에서 발행한 『친목회회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회보는 1896년 제1호가 발행된 뒤 1897년 12월 제6호까지 발행되었는데, 각 회보마다 12~14편 내외에 논설 또는 논문이 실려 있다.⁵⁾ 이들 논설과 논문에는 일본의 역사나 학술을 직접적으로 소개한 것이 없다. 대부분의 논문은 일본에 소개된 서양 이론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일본의 근대화가 서구 지식의 도입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메이지 유신에 대한 이 시기 지식인들의 태도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한배호(1975)에서 메이지 이데올로기의 양면성을 분석하면서 “메이지 유신의 전개 과정에서 ‘사실’은 항시 ‘사상’에 선행하였다. 더욱이 사상이 이론으로 승화 결실되는 여유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듯이, 일본의 근대화 과정은 ‘구화주의(서구주의)’의 차원에서 학술을 수용하면서 ‘문명개화’와 ‘부국강병’을 목표로 하는 ‘국가주의’, 좀 더 정확하게는 ‘일본주의’ 사상을 창출하였다. 1890년 공포된 교육칙어(教育勅語)는 일본주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청일전쟁의 승리는 일본식 ‘애국주의’와 ‘국가주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친목회회보』도 이러한 일본 학술, 사상, 교육사를 반영하듯 학술 이론은 일본어로 번역된 서구 이론을 소개하고 있지만, ‘외보’의 일본 관련 기사에서는 일본의 공업화, 교육 개혁 관련 소식을 빈번히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1호의 ‘日本 文部大臣의 教育談’에

5) 『친목회회보』의 내용 분석에 대해서는 차배근(2000)을 참고할 수 있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수록된 논설 또는 논문은 대략 80여 편이며, 내보와 외보, 문원에 실린 글을 분석할 경우 총 기사 건수는 각 호마다 120건 내외에 이른다.

서 ‘영어 교육 강화’를 주장하는 문부 대신의 의견을 소개한 것이나, 제2호의 ‘愛國之心을 涵養’에 등장하는 동경교육회의 국사 교육 강화론, 제6호의 ‘高等 智識 分配上의 緩急’에서 국내에서 국외로 팽창하기 위한 고등 교육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소개한 것 등은 갑오개혁 이후 국내에 소개된 일본 관련 기사들이다.

국내에서 일본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는 그들의 국가주의가 공고화된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896년 발행된 『대조선독립협회회보』⁶⁾나 『협성회회보』, 『미일신문』, 『독립신문』, 『제국신문』 등과 같이 1900년대 전후의 학회보나 신문 등에서도 일본의 사상, 교육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는 찾을 수 없다.

1900년대 이후 일본 관련 지식 유통 경로는 세 가지 흐름을 보인다. 첫째는 『일본유신30년사』와 같이 중국어로 된 역술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로, 이는 1895년부터 1897년 사이 학부에서 광학회 서적을 편역한 것과 같이, 이 시기 상해에 중국어로 보급된 일본 서적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이다. 이는 이 시기 중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중국에서도 일본 관련 서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다음은 이를 증명한다.

(5) 일본이 식로 청국을 침범함

엇던 서양 월보에 기록한 것을 보건디 일본이 식로히 청국을 침범하는 디
이 침범하는 것인즉 군스로 힘이 아니오 개척으로 힘이라. 힘으로써 승부를 겨르는 디신에 룡략하는 지조와 지혜로써 군스를 디신하며 학문의 수업 경영으로써 군기를 삼아 완고하고 쇠미하여 들어가는 청국을 제어하고 일본이 동양에 데일 권리를 잡으려 하니 근력 형편으로 수업상 권리의 도라기는 것을

6) 이 회보는 독립협회 창립 직후인 1896년 11월 30일 창간되어, 1897년 8월 15일까지 제18호를 발행하였다. 이 회보에서도 일본의 정치나 사상 등에 대한 소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불진디

일은 몇히 전에 장지동이 우창 디방에 농업학교를 설치하였는디 미국 교스를 고빙하여 주장하게 하더니 지금은 전혀 일본인에게 돌려보냈으며, 이는 항주에 있는 무관학교를 전혀 일본 스펀이 교련식히는 바시오, 삼은 각식 식학문 서칙 번역하는 거시 티반이나 일본 사람들에 하는 바오, 스는 근력에 장지동이 유학하는 심도들을 만히 썬바 일본에 보너여 각식 전문학을 공부하게 하였으며, 오는 청국에 나는 신문 월보 등류가 거의 티반이나 일인의 주장이 아니면 혹 일인의 고즈하는 바인디 기중 하나흔 량국 교제상에 데일 권력 잇는 신문이오, 룩은 거의 일빅명 가랑에 일본 심도들이 상히 학교에서 영어와 청어를 공부하며 경형과 다퉈를 비화 장츠 청국에서 정치와 교육과 농업과 상업과 광산 털도 등 모든 긴요하고 권력 잇는 자리를 도모하야 맞출 목적으로 주의하는 바이오, 칠은 각식 신학문 번역하는 회를 실시하야 상히에서 스무를 확장하는 중인디 주의인즉 문명에 유조홀 서칙을 만히 번역하야 전국에 전하하야 인민의 식견을 열 터인디 서양글로 번역하는 이보다 일어로 하는 거시 더 첩경이 된다 하여 왈 일본이 그왕에 서양 정치 학술의 가장 정긴흔 거슬 썬바다가 만들어 시형하야 그왕 경력을 지닌 거시니 더욱 긴첩하다 흠이라. 정치상 경제술과 보통학과와 룡리학과 소화론흔 독본들이며 만국의 고급 스기를 번역하여 다퉈 책을 청국 각 착전에서 만히 파는디 흔히 광고하기를 일본서 만들었다던지 혹 일본인이 번역흔 거시라 하는지라 일로 불진디 청국에서 새로히 일보 권리 안에 들어 그 숭상흔 뜻술 가히 보깃더라. 이상은 청국의 근력 형편을 보는 자ㅣ 비교흔 말이어니와 대한에 형편은 썬흔 엇디타 하리요. (하략) - 『제국신문』 1902.10.27. 른설,

이 논설은 이 시기 중국과 일본, 한국의 지식 유통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 일본은 중국 각지에서 서양인들의 권리를 인수받고, 각종 서류를 번역하여 일본문으로 된 서적을 유통시켰다. 이는 중국인이나 한국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 결과 중국에서도 ‘영어보다 일본어를 먼저 배워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실정이었다.

둘째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급증함에 따라 일본어로 된 서적이 직수입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본어 서적의 직수입은 제일 관비 유학생의 증가, ‘경성학당’과 같은 일본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증가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1905년 이후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에는 경성(京城), 평양(平壤) 등지에 산재한 국내 각 서점의 서적 광고가 빈번히 등장하는데, 이들 광고에는 일본인이 저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교과서명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대한매일신보』 1906년 6월 10일, 13일 광고된 ‘평양 종로 대동서관’에서 판매한 도서 목록이 있다. 이 목록에는 55종의 역사서, 8종의 지리서, 49종의 정치·법률서, 12종의 사회학서, 19종의 철학서, 18종의 경제학서, 14종의 농학서, 11종의 상업서, 10종의 공업서, 35종의 의학서, 18종의 병학 발명서, 22종의 전기가 등장한다. 이 가운데 『일본유신 활력사(日本維新活歷史)』, 지리학의 『일본정치지리(日本政治地理)』, 정치·법률서인 『일본감옥법률상해(日本監獄法律詳解)』, 『일본학교장정휘편(日本學校章程彙編)』, 병학 발명서인 『일본무비교육(日本武備教育)』, 전기인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 『일본유신상개사열전(日本維新慷慨士列傳)』 등은 일본에서 출판된 것을 직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4일자 광고에 등장하는 경성(京城) 일한서방(日韓書房)의 서적 광고에는, 도쿄(東京) 동문관(同文館)에서 직수입한 서적 134종이 등장한다. 이처럼 일본어로 쓰인 서적이 급속히 증가한 까닭은 통감시대 이후 전국 각지에 설립된 학교가 일본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일인 교사를 고용하고 일본어로 된 교과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⁷⁾

7) 이러한 경향은 『대한매일신보』 1906년 6월 27일~28일의 희구생(喜懼生)이라는 필명의 기고문 ‘警告大韓教育家’에도 잘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今日我邦之教育界 現勢를 靜言察之 則 自京城으로 至於各地方 新設學校之大部分은 教師가 皆是日人이오 教科書가 皆是 日本 文部省 檢定 教科書라 其中에 或有 改良之處나 此亦不

셋째는 일본어로 된 서적을 국문으로 역술하는 경우이다. 일본인 야마우치(山内正瞭)의 『식민론』을 역술한 이채우(李採雨, 1908)의 『세계식민사(世界殖民史)』, 마쓰이(松井茂)의 경찰론을 번역한 조성구(趙聲九, 1909)의 『경찰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직까지 일본어 서적의 역술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 시기 지식 보급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학술서와 실용서의 번역은 활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 보급을 위한 각종 잡지의 간행과 국문 신문의 창간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6) 서적 잡지를 통한 지식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논설

- ㄱ. 夫書籍者는 學問之元素物이라. 苟欲開闢學問인던 非資乎書籍이면 無以爲功호리니 假令家置一塾호며 里設一校호고 又其人也皆有聰俊 穎敏之才質호야 願學於新學問之術이라도 (中略) 當今爲國之計는 吾輩同胞者ㅣ 宜各相注力於書籍之廣佈와 新書之購覽호야 唯一日一寸이라도 增長知識이 實爲愛國之血性也니 嗚呼 同胞는 宜勉之哉 어다. - 『황성신문』 1905.4.4. 논설, ‘書籍印布爲開明之第一功業’
- ㄴ. 近日에 我韓國의 開明之程度가 漸進一步호야 稍稍有振起之望을 徵之於報館之蔚興에 可驗矣로다. 夫報館者는 實啓導文明之第一嚆矢

過直譯而面 百步五十步之差에 止호도다. (중략) 現今 日本之對韓殖民政策이 極히 秘密陰險호야 其內容을 不可枚舉나 其大主意는 我邦의 腐敗호 政治制度를 如前置之호고 其政府之紊亂을 利用호야 實利實益을 舉皆占得호고 教育手段으로써 我邦 國民으로 호야금 祖國 國性을 忘却케 호고 日本의 歸依호는 思想을 養成케 호야 韓人을 同化코져 호난 等事라. 我邦 教育家가 此에 猛省치 아니호고 不得已 三字로 名義를 숨어 教育主義를 日人 教師에게 專託호거나 日本 教科書를 取捨斟酌치 아니호고 原本되로 採用호거나 호면 其教育之結果는 日本을 崇拜호는 思想을 養成호야 其同化政策에 自中호기 容易호고 且其學識이 島國思想을 不能脫去호야 二十世紀 文明世界에 通用호 範圍가 甚狹호리로다.(下略)”라고 하여, 당시의 교육이 일본의 동화정책의 영향하에 있었음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也라. 學校之設은 只是蒙駘幼稚와 與青年子弟之教育機關也어니와 至於新聞雜誌等種類호야는 實一般社會上老成之教育也니 新聞雜誌之多數彬興은 卽社會程度之漸開也오 亦補益於開明之前步者ㅣ 甚不尠호니 吾儕는 對此事件호야 不能無同情之感일시 茲에 畧表攢頌之辭호노니 (下略) - 『황성신문』 1906.6.29. 논설, ‘各種雜誌之刊行’

이 두 논설은 지식 증장을 위해 서적의 발행과 보급, 신서적의 구입, 신문과 잡지 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황성신문』 소재의 논설이다. (6ㄱ)에서는 지식을 증장하는 것을 ‘애국’으로 규정하였고, (6ㄴ)에서는 신문·잡지가 문명 제도의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하였다.⁸⁾ 이러한 논리는 개항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지식 보급을 위한 서적, 신문·잡지의 발행은 1905년 이후의 상황에서도 나아진 것이 없었다. 더욱이 통감시대 이후 일제의 정치, 사회, 교육 통제가 강화되고, 동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국문 지식 보급은 더욱 어려워졌다.⁹⁾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외국 서적의 역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2. 학술사상사와 교육사 역술의 의미

『전도30년』, 『메이지삼십년』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 30년을 기념하기 위해 집필된 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일본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일본의 국가사상이 이 책의 중심 사상을 이루고 있다. 다카야마 린지로(高山

8) 이 논설은 1906년 창간된 『수리학잡지』, 『가정학보』, 『조양보』, 『대한자강회월보』를 축하하기 위한 논설이다.

9) 『황성신문』 1906년 9월 7일자 논설 ‘國文報를 宜人人讀之’,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14일자 사설 ‘國文報 并刊’, 5월 26일자 논설 ‘各報의 品評과 國文報 發行의 趣旨’, 1908년 1월 25일자 논설 ‘國文學校의 日增’ 등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논설로 볼 수 있다.

林次郎이 집필한 제1편 ‘총론’에서는 이를 ‘국민사상(國民思想)’이라고 명명하고, 국가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하였다. 『황성신문』에서는 제1편을 중국어판을 기준으로 하여 ‘학술편’이라고 번역하였는데, 그 가운데 국가주의 형성 단계와 관련된 1906년 5월 18일자 번역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7) 수에 國家主義를 主論하는 者가 舉皆 據此立說하니 我國의 政體로 英法 諸國에 比較하면 相爲近似하되 英吉利의 功利論이 與我現世主義로 大同小異한 故로 人皆樂受하니 要之컨디 日本主義가 科學見識으로써 我國의 國體 民性을 講求하야 一定한 標準을 立하야 國民을 統一하라는 思想인 디 此主義를 排斥하는 者는 不可不 辨難하야 以爭自存일식 反對之聲이 至今未絶하야 影響의 大小와 勢力의 消長이 또한 今日에 豫測할 바 아니로다. 據上所述하면 明治 三十年間에 國民思想의 變遷한 形迹을 可窺一斑이니 由是하야 下文 各編을 繼續하면 其影響의 及한 바를 考據하기 容易하도다. 明治 三十年 思想 變遷 發達 一覽表(省略)¹⁰⁾

10) 4단계 사상 변천 발달 일람표는 제1단(메이지 초년~6·7년), 제2단(메이지 6·7년~20년 전후), 제3단(제20년 전후~29년), 제4단(메이지 30년 이후)로 설정되었다. 번역본에서는 각 단계의 ‘일본사상’과 ‘외국사상’의 유형만을 제시하였는데, 본래는 각 단계의 사상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제1단계의 일본사상은 ‘神道(國學)’, ‘儒教(漢學)’, ‘佛敎’가 중심을 이루고, 외국사상은 ‘功利主義(英國派)’, ‘自由主義(法國派)’, ‘國家主義(德國派)’, ‘博愛主義(基督教)’가 중심을 이룬다. 제2단계의 일본사상은 ‘신도’, ‘유교’, ‘불교’가 중심이 되며 ‘국가주의’가 등장하는데, 이는 앞선 단계의 ‘신도, 유교’의 직접적인 영향과 ‘불교, 국가주의’의 간접적인 영향을 토대로 한 것이다. 외국사상은 ‘공리주의,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하며 ‘국가주의, 박애주의’도 존재한다. 이들 사상은 앞선 단계의 ‘공리주의, 자유주의’를 직접적으로 계승한 것이며, ‘국가주의, 박애주의’도 간접적으로 계승하였다. 제3단계의 일본사상은 ‘신도, 유교, 불교’가 강하게 나타나며 ‘국가주의’도 지속된다. 외국사상은 ‘공리주의, 박애주의’가 강하며, ‘국가주의, 자유주의’도 지속되었다. 제4단계에서는 일본사상으로 ‘신도’와 ‘국가주의’가 강하게 나타나며 ‘유교’와 ‘공리주의’도 지속된다. 외국사상은 ‘불교, 박애주의(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며, ‘공리주의’와 ‘박애주의’도 지속된다. 이 표를 중심으

이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주의는 영국의 공리론과 현세주의와 유사하며, “과학 견식으로 일본의 국체와 민성을 강구하여 국민을 통일하고자 하는 사상”으로 규정된다. 제1편 학술편을 참고할 때, 메이지 30년 전후의 일본 사상은 ‘국가주의’를 토대로 한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주의가 형성되기까지는 4단계의 변화 과정이 있었는데, 각 사상이 어떤 때에는 국가주의에 이어지고 어떤 때에는 외국사상으로 간주되며 일본 국학과(국수주의)에 의해 공격 받기도 하였는데, 근본적으로는 일본 국학자들이 내세우는 ‘신도(新道)’를 중심으로 독일의 국가주의, 영국의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아 확립한 사상이라고 설명한다.

‘일본유신30년사’에서 일본의 학술사상이 ‘국가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정리한 것은 이 시기 일본을 통한 지식 유통 과정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유신(維新)’을 표방한 일본의 주류 사상이 ‘국가주의’에 있었으며, 이 국가주의는 ‘서구화’에서 ‘일본화’, 좀 더 나아가서는 식민 침탈 야욕을 은폐한 일본 중심의 ‘동아주의(東亞主義)’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본유신30년사’에서는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확립된 시점을 메이지 30년(1898년) 이후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근거에는 1890년 발표된 ‘교육칙어(教育勅語)’가 있었다고 설명한다.¹¹⁾ 이처럼 국가주의의 확립 과

로 볼 때, 일본의 국가주의는 메이지 20년 전후 일본의 전통적인 ‘신도’와 ‘불교’의 영향 아래 독일의 국가주의를 가미하여 형성되었으며, 제4단계인 메이지 30년(1898년) 이후 일본의 중심 사상으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 ‘일본유신30년사’에서는 외국사상과 일본사상의 갈등 과정에서 국가주의로 통일되는 과정을 “此際에 教育勅語가 煥然頒發함이 國論이 於是乎一定함이 忠君愛國으로 國民道德의 大旨을 삼으니 然則 教育上과 社會上에 勅語이며 政治上에 憲法이 足히 統一人心함이 國民思想의 大方針을 指定함 者로다. 教育勅語가 一下함 以後로 國粹 保全에 主義가 一轉함이 國家主義의 思想이 되니 於是에 多說自由平等하고 少說 忠君愛國함이 從來의 歐化主義가 不得不 枉其所信함이 以求合於勅語하고 基督敎도 또한 其性質을 改良함이 歸本國家함이 心醉西洋함 風勢가 自是漸衰라.”라

정에 등장하는 독일의 ‘국가주의’, 영국의 ‘공리주의’, 일본의 ‘교육칙어’는 1900년대 한국의 계몽사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05년 이후의 각 학회보나 신문에 역술된 서구의 사상이나 일본의 교육사조는 대부분 국가주의나 공리주의와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 시기 각종 매체에서 ‘비스마르크’의 전기, 스마일스의 ‘자조론(自助論)’이나 ‘용기론(勇氣論)’을 번역 등재한 것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²⁾

‘일본유신30년사’ 제8편 ‘교육편’ 역술은 일본의 국가주의 형성 과정을 비교적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글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세가와 텐케이(長谷川天奚)라는 필명으로 더 유명한 하세가와 세이야(長谷川誠也, 1876~1940)가 집필한 부분으로, 일본 근대 교육의 특징을 14장으로 나누어 요약하였다. 그 가운데 역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제8편 교육편 역술

일자	제목	내용
1906.12.17.~18.	第一章 維新前之教育	유신의 의미와 막부시대 교육기관
1906.12.19.	第二章 維新初年之教育	문부성 설립 과정
1906.12.20.~21.	第三章 頒行學制	메이지5년 학제 반포, 7년까지의 보통교육 상황
1906.12.22.~24.	第四章 高等教育	도쿄대학 설립과 진습소
1906.12.25.	第五章 下教育令	메이지 12년 교육령 반포, 13년 교육령 개정
	第六章 獎勵德育	한학(漢學) 추가

고 설명하였다. 『황성신문』 1906.5.12.

12)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리가 필요하다. 비스마르크의 경우 『조양보』, 『낙동친목회』, 『태극학보』 등에서 역술 등재한 바 있고, 스마일스의 저술은 『조양보』, 『소년』 등에서 역술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식민사(殖民主史)’를 내용으로 하는 서적이거나 ‘경쟁론’을 주장하는 다수의 논설도 국가주의라는 시대사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906.12.26.	第七章 鍛鍊氣質	메이지 18년 교육령 개정, 19년 제국대학령, 사범학교령,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모든 학교 통칙 반행
1906.12.27.	第八章 教育勅語	메이지 23년 교육칙어 발표, 24년 문부성 관제 개혁, 소학교 축일·대제일·의식 제정, 심상 사범학교 학과 장정 개정, 25년 생도 모집 규칙 수정, '수신'과 '국어' 강조
1906.12.28.	第九章 教育與宗教之衝突	메이지 20년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의 『교육시보』 논문 '국가와 그리스도교의 충돌(國家と耶蘇教との衝突)' 이후 기독교와 교육의 충돌 과정
	第十章 世界主義 與 國家主義之衝突	메이지 28년 사이오지(西園寺) 문부대신의 사범학교 교장단 발언과 논쟁
1908.12.29.	第十一章 日清戰爭之影響	메이지 28년 제국교육대회와 국가주의, 상무교육 강조
1908.12.31.	第十二章 前後之教育界	메이지 29년 이후의 교육

표에 정리한 바와 같이, '교육편'은 메이지 이후 1898년까지의 일본 교육사에서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광지서국(1902)에는 제13장 '최근의 교육계(最近之教育界)'와 제14장 '교육학풍의 변천(教育學風之變遷)'이 더 있으나, 이후 역등되지 않았다. 제13편의 주요 내용은 소학교원(小學教員)에 대한 대우 및 교토(京都) 제국대학, 외국어학교, 고등교육회의 등을 설립한 사실을 기록하였으며, 제14장에서는 메이지 시대의 서구 교육학 수용 과정을 간략히 서술한 부분이다. 12월 31일자 역술본에서 '완', '미완', '속' 등의 표시가 없어서 계속 역등할 의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 일지에서 종료하고자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후에 연재된 것이 없고 단행본으로 출간된 적이 없어서 더 이상 역술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미완성의 역술일지라도 이 자료는 8개월이라는 긴 시간 지속적으로 연재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연재된 신문 자료 가운데 가장 방대한 분량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사상과 교육사 관련 지식은 1881년

조사시찰단의 조사였던 조준영의 『문부성소할목록』 이후 가장 체계적인 것이며, 조준영의 보고서가 메이지 초기의 교육 실태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 역술본은 메이지 30년까지의 사상사과 교육사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일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였다. 이예안(2014)에서 1907년 고종과 순종에 의해 천명된 ‘유신아방명(維新我邦命)’의 성격과 좌절 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듯이, ‘유신’과 ‘국가주의’는 ‘진화사상’ 또는 ‘경쟁론’과 함께, ‘자강’의 방책을 강구하는 이데올로기로 변화해 가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³⁾ ‘일본주의’, ‘국가사상’, ‘일본혼’ 등의 개념이 오로지 ‘일본유신30년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충군애국’, 도덕심에 바탕을 둔 ‘국민사상’, ‘조선혼’ 등의 개념이 일본의 메이지 역사에 대한 지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에 대해 이예안(2014)에서는 『메이지 30년사』의 ‘황국사관’, ‘일본주의’, ‘진보주의’가 우리나라에서 ‘국민사상’, ‘충군애국’으로 치환된 것으로 규정하고, 이 치환은 ‘국가 정치의 정통성’이나 ‘정치 개혁의 진보성’과 단절된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정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상사나 교육사적인 차원에서도 가능하다. 끊임없는 신구학의 대립설과 ‘신학문 우선주의’가 이 시대의 중심 교육사조였고, 경쟁시대 생존과 진화를 위한 학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역사’와 ‘영웅’을 찾아내는 일을 중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자국의 문야득실(文野得失)’에 ‘대영향(大影響)’, ‘대보익(大補益)’을 위해 역술한 ‘일본유신30년사’는, 그 자체로서 ‘강구(講究)’해야 할 역사적 사실이었으

13) 예를 들어 『황성신문』 1906년 11월 18일~19일자 논설의 ‘경쟁시대’는 일본의 유신 이 거둔 성과를 “請言近百年來에 國內之私相競爭호야 以較東西各國에 許多競爭之歷史호리니 思之至此에 孰不懼然而興者乎야. (中略) 近有日本之維新호야 文明 風潮가 浸溢於全球之大陸호시 我國是時에 方泊於勢家之爭權호고 彼方研究學問에 發達天地之妙奧커늘”이라고 서술하였다.

나, 이 시대가 요청한 국가주의와 국민사상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IV. 결론

통감시대 학정 잠식이 본격화되고, 국권 침탈의 위기가 가속되는 상황의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15일자 논설에서는, “현금 한국 내에 혀를 흔드는 자도 ‘교육 교육’하고, 나라의 중흥하는 것도 ‘교육’에 있다 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도 ‘교육’에 존재한다고 하여 교육 풍조가 한인 사회의 일대 경향을 이루었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금일 교육이 과연 나라를 중흥하게 할 교육인가”라고 되묻고 있다. 이 논설에서는 진정한 애국 교육은 ‘국민적 교육’이며 ‘인도적 교육’이며 ‘정신적 교육’이며, ‘홍국적 교육’을 말한다고 하면서, 지금은 상황이 ‘노예적’, ‘금수적’, ‘기계적’, ‘망국적’ 교육 상황이라고 통탄하고 있다. 이 논설에서는 현금 교육가의 상태를 진단하면 “스스로 문명 신사(紳士)로 자처하고 다른 사람도 문명 신사로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편리한 혼돈과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고 규정한다. 더욱이 “외국 서적은 행세의 요결(要訣)로 인식하고, 뇌근(腦根)은 물질적 문명을 수입하는 데 불과하여, 심한 자는 원유회(園遊會)나 참여하고, 혹 외국인과 악수의 예나 행하면 능사인 줄로 오해하며, 행동이 법률의 내에만 넘지 않으면 민권이 대창(大昌)하는 줄 망상(妄想)”한다는 지적은 국권 침탈기의 학술사상과 교육 실태를 잘 보여준다. 이 글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황성신문』 1906년 4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 역등된 『일본유신30년사』는 1902년 상해 광저서국에서 재일본 중국인 유학생 루

오샤오가오(羅孝高)가 중국어로 역술한 『일본유신30년사』를 국한문으로 역술한 것이다.

둘째, 『황성신문』에서 이 책을 역술한 까닭은 ‘역사의독(歷史宜讀)’에서 “역사학의 이해득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듯이, 일본의 역사를 ‘강구(講究)’하고 ‘모범(模範)’해야 할 자료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셋째, 이 역술본은 개항 이후 일본 관련 지식을 단편적으로 소개하거나, 아예 일본어로 지식입히는 상황에서 국문 보급의 필요성에 부합하여 역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록 전편을 역술 등재하지는 못했지만 8개월이라는 비교적 오랜 기간 연재된 만큼, 역술본에 소개된 일본 관련 지식의 양적인 면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이 역술본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자료에 나타난 학술사상사와 교육사 관련 지식은 메이지 이후의 일본주의, 국가사상, 국민사상 등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특히 메이지 유신의 국가주의 사상과 교육은 국권 침탈기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국의 국가사상, 국성론(國性論) 또는 국민사상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이 시기 일본의 사상과 교육은 그 자체로서 모범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면서도 저항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는 이중성을 갖고 있었다. 일본의 근대화를 긍정하고 선망하면서 모범해야 한다는 논리와 국권 침탈에 대한 저항의 논리가 혼재 되는 상황에서 메이지 유신 담론과 국가 이데올로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 논리가 산출되는 데에는 시대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漢城旬報』, 프레스센터, 1983.
_____, 『漢城周報』, 프레스센터, 1983.
_____, 『漢城旬報·漢城周報 翻譯版』, 프레스센터, 1983.
廣智書局, 『日本維新三十年史』, 東京 博文館, 上海 廣智書局 譯印, 1902.
韓國學文獻研究所, 『韓國 開化期 學術誌』, 亞細亞文化史, 1977.
韓國文化刊行會, 『皇城新聞』, 송산출판사, 1980.
허동현, 『조사시찰단보고자료집』1~14. 국학자료원, 2004.

2. 논문 및 단행본

- 김효전,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철학과현실사, 2000.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 연세대학교출판부, 1971.
양일모, 『번역과 개념으로 본 중국의 근대성: 유신과 혁명을 중심으로』, 『동양철학』33, 한국동양철학회, 2010, pp.173-198.
이광린, 『한국 개화사상 연구』, 일조각, 1979.
_____, 『한국 개화사의 제문제』, 일조각, 1986.
이예안, 『대한제국기 “유신(維新)”의 정치학 -개념의 치환과 ‘일본유신 30년사』, 『개념과소통』14, 한림과학원, 2014, pp.61-94.
차배근, 『개화기 일본 유학생들의 언론출판활동연구』1,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한배호, 『일본근대화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75.
허재영, 『근대식 학제 도입 이전의 학교와 교과서 연구』, 『한국언어학문』87, 한국언어문학회, 2013, pp.517-545.
_____, 『근대 계몽기 외국어 교육 실태와 일본어 권력 형성 과정 연구』, 『동북아역사논총』44, 동북아역사재단, pp.315-354.
_____, 『광학회 서목과 『태서신사남요』를 통해 본 근대 지식 수용과 의미』, 『독서연구』35, 한국독서학회, pp.229-252.

Abstract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It's meaning which was Translated
and Serialized of ILBONYUSHINSAMSIPNYEONSA(日本維新三十年史)
in HWANGSYUNSINMUN(皇城新聞)

Heo, Jae-Young

This study aims to explor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it's influence of the history of scientific ideas and education in HWANGSYUNSINMUN. I noticed the translated channel and the influence of the first chapter which benamed the history of scientific ideas and the eight educational history chapter.

The translated and serialized article of ILBONYUSHINSAMSIPNYEONSA(日本維新三十年史) appeared in the press from April 30 to December 31 in 1906 in HWANGSYUNSINMUN(皇城新聞). It was published first benamed MEIJISAMSIPNYEONSA(明治三十年史) in 1898 by BAKMUNG-WAN(博文館) Press in Tokyo. This book was translated into Chinese benamed ILBONYUSHINSAMSIPNYEONSA by RUGAOSHIAO(羅孝高) who studying abroad in Japan. It published GWANGJISEOGUK(廣智書局) publishing in Sanghai(上海) in 1902. It was translated by the HWANGSUNG-SINMUN.

The first chapter focused on the formation of Japanese Ideology. There were features that national ideas nad nationalism. These ideas formed during the Meiji 30 years from their traditional thought, British utilitarianism and German's nationalism. The educational history meanted the process which was the formation of nationalism. I think that these concepts effected on our nationalism which contained national character. These concept did not functioned because it adopted dual-aspect pro-Japanese and anti-Japanese, and it was somewhat had ambiguity.

Key Word : ILBONYUSHINSAMSIPNYEONSA(日本維新三十年史), HWANG-SYUNSINMUN(皇城新聞), translated and serialized, history of scientific ideas, educational history, nationalism.

허재영

소속 : 단국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국어교육) 부교수

전자우편: hjy435@hanmail.net

이 논문은 2015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5년 8월 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8월 10일 게재 확정됨.

